

# 업계와 평행선 달리는 출판교육

## 넓은 교과과정, 이론과 실습의 안배문제가 심각

출판과 및 인접학과가 있는 학교는 대학원 전문과정을 제외하고 모두 13개, 전문대학이 11개, 4년제 대학이 2개이다. 이 가운데 명칭이 출판과인 5개 학교를 빼면 나머지는 과 이름도 다양각색이다. 과 명칭에 따라 교과과정은 차이가 나지만 대체로 1학년 때는 총론적인 출판학개론·출판사·매스컴(커뮤니케이션)론·인쇄학 등을 배우고, 각론으로 출판경영론·출판법규론·(출판)광고론 등을 배운다.

### 시대에 뒤떨어진 커리큘럼

2학년 때는 좀더 전문화된 각론이 편성되는데, 국어표기법·문장론·교정·전산편집·출판제작 등 실습이 주가 된다. 비교적 최근에 생긴 대학들은 과 명칭부터 전자출판 환경을 전제하고 있어 전자출판 실습이 높은 학점으로 책정되어 있다. 편집디자인이나 출판편집과들은 편집디자인 실습을 6학점에서 9학점 정도로 책정하고 있어 실무·실습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출판인접학과들이 꼽는 가장 큰 교과과정

### 출판인접학과의 가장 큰

#### 교과과정상 문제는

####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 커리큘럼, 현장과

#### 동떨어진 이론 등을

#### 꼽을 수 있다. 출판과가 무엇을

#### 가르치고 배우는 곳인지

#### 모호하게 만드는 데

#### 출판업계의 무관심도

#### 한 요인으로 지적된다.

상의 문제는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커리큘럼이다. 김포전문대 김경일 교수는 “활판으로 책을 만드는 출판사는 거의 없는데도 커리큘럼에 활판인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시대에 뒤떨어진 교과과정을 지적한다. 90년 이후로 생겨난 출판과의 경우 전자출판 환경을 전제하고 있지만, 그 이전

학교이름	학과이름	개설연도
혜전전문대	출판과	1982
대전전문대	출판과	1989
부산전문대	인쇄출판과	1989
신구전문대	출판과	1989
대구전문대	출판인쇄과	1990
백제예술전문대	출판편집과	1992
서일전문대	출판과	1992
동주여자전문대	편집디자인과	1993
경인여자전문대	전자편집디자인과	1993
김포전문대	전자출판과	1995
계원전문대	전자출판전공	1995
광주대학교	출판광고학과	1989
원광대학교	문예출판학과(야)	1995

에 개설된 출판과는 대개 활판인쇄를 배우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쇄를 배우는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대구전문대 이동성 교수는 “우리과 학생들을 요구하는 곳이 대개 인쇄·제작계통이다. 수요가 많아 현장에 적응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인쇄과정을 아예 빼버릴 수도 없다”고 말한다. 출판업계가 고급인력으로 출판과 졸업생을 수용하지 않으니 전문 기능이라도 익히게 하자는 것이다.

### 생명력 있는 현장교육 요구

여기서 생기는 문제가 실습과 이론의 안배문제다. 전문 기능인을 지향하자면 실습 위주의 교과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 대전전문대 이재학 교수는 “전문대학의 설립취지는 전문 기능인을 키우는 것인데, 출판과는 인문적 소양과 전문적 기능까지 담으려 한다”며 실습위주로 교과과정을 편성해 관련 소프트웨어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같은 학교의 이종국 교수는 “매체는 그것을 생산하는 아이디어가 가장 중요하다. 현장에서 생명력을 가지려면 연구·토론과 같은 출판기획론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다른 입장을 보인다. 4년제인 광주대학교 김서중 출판광고학과장도 “과학적 영업을 하려면 영업인도 문화적 소양을 갖춰야 한다”며 앞으로 대중문화론·출판문화·커뮤니케이션 기초와 같은 과목을 강화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입장 차이는 교수들의 전공과 관련이 깊다. 문학을 전공한 교수와 화학을 전공한 교수, 미술을 전공한 교수까지 출판과에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라 체계적인 교과과정 수립이 어렵다.

교과과정상의 혼란 뒤에는 출판과의 위상 문제가 민감하게 놓여 있다. 예컨대 ‘출판학’과 ‘출판’의 과명칭에서도 드러난다. 이는 같은 학교 내의 교수들 사이에서도 합의가 안되고 있다. 계원전문대 이기성 교수는 “좀더 미래지향적인 인력양성을 위해 멀티미디어를 다룰 줄 아는 출판인을 키워야 한다”며 출판과의 커리큘럼이 종이책만을 중심으로 짜여지는 것을 경계했다.

서일전문대를 졸업한 김중현씨(26, 섬유저널 기획팀)는 “많은 동기들이 실무를 익히기 위해 다시 학원에 다니는 것을 보았다”며 이론 중심의 학교 교육과 실제로 현장에서 요구하는 능력의 차이를 실감한다고 밝힌다.

출판과가 무엇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인지 모호하게 만드는 데 출판업계의 무관심도 한 요인으로 지적된다. 김포전문대 김경일 교수는 “변화가 빠른 업계의 요구가 학교에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산학협동”이라며 출판업계의 관심을 촉구했다. 대전전문대 이종국 교수는 “2년 동안 학교가 가르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업계가 출판과 학생들을 보듬어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출판계가 출판과 학생들을 수용하지 않으려는 현실을 지적했다.

출판과 커리큘럼의 중요한 두 문제, 넓은 교과과정과 이론·실습의 조화는 출판과 위상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는 한 쉽게 해결되지 못할 것이다. 모든 이들이 대안으로 내놓는 수업연한의 연장도 출판과와 업계가 어떤 인력을 키워낼 것인가에 합의하지 못하는 이상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이현주 기자

### 나의 의견

## 배출된 인력을 업계가 끌어안아야

### 전공에 따른 특화개념 중시하길

이종국 · 대전전문대 출판학과 교수

출판업계는 우리 출판교육 현장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실질적인 현장 마인드 교육이 아쉽다보니, 출판은 여전히 경험법이 지배적이라는 식으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적지 않다. 그와 같은 논리가 개운치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대부분의 출판기업들이 현장실습마저 달갑게 여기지 않고, 둘째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나 채용과정에서도 전공 특화개념을 중요시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셋째 현실과 상합되지 않는 교수·학습활동을 이행하고 있다는 등으로 오해해 왔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불행하게도 그런 인식은 확일적인 발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문제는 인력을 배출했으면 끌어안아야 하는 쪽이 업계가 할 일이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평범한 이치를 말하지 않더라도, 출판을 배워 그쪽으로 꿈을 키워보겠다는 소망은 성의를 다해 거둬들여야 한다. 모두 ‘우리의 일’이요 또한 산학이 함께 나서야 할 임무이기 때문이다. 특히 교수·학습과정에 대한 부분은 쉽게 평가할 일이 아니다. 우리 학생들은 이론과 실재를 나름대로 충실히 연마하고 있으며, 무한가변 시대의 출판현상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응분의 훈련을 쌓고 있다. 출판을 가르치는 교수자 중의 한 사람으로서 나 역시 그 점을 크게 중시하고 있다. ❖